

政府의 綜合貿易商社 育成方向이 商社 經營成果에 미친 영향에 대한 計量的 分析

趙 東 成* · 洪 性 泰**

目次	
I. 序 言	3. 收益性에 대한 假說
II. 研究方法 및 對象의 決定	IV. 統計資料의 分析
1. 從屬變數	1. 相關係數表에 의한 檢討
2. 獨立變數	2. 重回歸分析에 의한 檢討
3. 統計集團	V. 結 論
III. 獨立變數와 從屬變數의 假說設定	VI. 本研究의 限界性 및 앞으로의 研究方向
1. 成長性에 대한 假說	
2. 安定性에 대한 假說	

I. 序 言

1960年代이후 經濟開發計劃의 推進過程에 있어 資源이 부족한 여건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輸出指向의 成長戰略을 폐지 않을 수 없었다⁽¹⁾. 그리하여 1962年 당시 3千萬달러에 불과했던 韓國의 輸出은 64年에 1억 달러, 71년에 10억 달러, 그리고 77년에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1981년에는 輸出目標額을 205억 달러로 잡음으로써 과거 20年間 약 700倍라는 비약적인 增大를 이루하였다.

그리나 1973年的 石油波動 여파로 世界經濟가 不況에 처하게 되고 新保護貿易主義가 일 반화됨에 따라, 1974年에는 60年代이후 최초로 수출실적이 정부의 목표에 미달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1978年까지 年間 100억불 輸出을 목표로 책정하였던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에 당황하여, 輸出窗口의 大型化, 精銳化 및 專門化에 의한 國際競爭力 強化를 통하여 積極的인 海外市場開拓을 시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綜合貿易商社 制度이었다.

그리하여 1975年 4月 商工部가 발표한 「綜合貿易商社 指定 등에 관한 要領」에서 綜合貿

筆者： * 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 經營大學 助教授

**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卒業

(1) 韓國開發研究院,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 p.73.

易商社에 대한 支援體制가 확립되었고, 그 후 1981年까지 13개의 綜合貿易商社가 設立, 指定되었다(이중 栗山, 三和, 韓一은 脫落). 이들은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輸出伸張에 큰 力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韓國의 100억불 수출은 目標年度인 1978年보다 오히려 1년 앞당겨진 1977年에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量的膨脹에도 불구하고, 綜合貿易商社의 安定性 및 收益性은 해마다 계속 악화되었다(〈表 2〉참조).

本研究는 綜合貿易商社들이 1979年에 발생한 栗山의 没落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成長一邊倒의 企業戰略에서 일보 후퇴하여 內的經營의 充實化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韓國綜合貿易商社의 量的增大 및 內的充實度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要素들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綜合貿易商社經營에서 발생하는 問題點은 商社의 經營者에게 그一次의in 解決의 責任이 있다고 하겠으나, 綜合貿易商社가 政府에 의하여 設立, 指定되고 그經營이 政府의 監督, 統制를 받고 있는 狀況에서는 政府의 綜合貿易商社 育成戰略이라는 與件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綜合貿易商社의 經營目標가 政治的인 動機에 연유한 政府의 輸出實績 추구에 비끌어 매어졌던 관계로 市場性을 의식하지 않은 무리한 輸出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不實在庫, 不實債權 등의 現地海外市場문제가 산적해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할 때 政府의 制度的인 영향력이 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綜合商社의 問題點을 규명하는데 根源의인 要素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研究는 二年前에도 本人(趙東成教授)이 「韓國政府의 綜合貿易商社 育成戰略에 對한 成果分析」⁽²⁾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가 있으나, 그 후 1979年 및 1980年的 資料가 새로 확보되었고 또한 綜合貿易商社의 性格과 育成方向에 대한 本人의 見解도 많이 修正된 바 있어, 本稿와 같이 再構成을 시도하게 되었다.

〈表 1〉 綜合貿易商社가 韓國의 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百萬달러, %)

	輸出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韓國全體(1)	5,427.4	8,114.1	10,046.2	12,711.1	15,074.8	17,507.9
綜合商社(2)	674.4	1,329.2	2,177.6	3,434.7	5,102.9	7,093.1
(2)/(1)	12.4	16.4	21.7	27.0	33.9	40.5

資料: '綜合貿易商社 現況', 商工部, 1980. 12.

(2) 「長洲 蘇眞德 博士 停年紀念論文集」, 서울대학교, 1979, pp. 385-418.

〈表 2〉 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

(단위 : %)

	安定性(自己資本比率)				收益性(賣出額利益率)			
	77	78	79	80	77	78	79	80
삼성	12.0	14.8	9.4	14.1	10.0	10.4	9.3	10.6
대우	25.7	24.9	22.5	20.6	13.2	15.1	11.5	6.6
국제	26.5	20.7	14.8	11.1	14.6	13.5	12.2	12.3
효성	14.5	8.9	5.5	5.9	3.3	2.3	2.4	2.5
쌍통	9.2	6.6	8.6	7.6	12.4	5.3	3.0	2.6
반도	9.3	10.8	10.7	13.2	7.9	7.6	7.3	8.7
현대	—	33.8	28.3	5.4	—	5.5	4.6	4.2
선경	9.8	11.8	9.6	6.2	14.2	13.8	13.4	7.6
금호	14.2	13.0	8.9	7.1	5.1	7.7	5.5	4.9
(평균)	15.2	16.1*	13.1	10.1	10.1	9.0	7.7	6.7

* 높은 自己資本比率을 가진 現代가 새로 指定받음으로써 전체적인 平均值가 다소 높아졌음

II. 研究方法 및 對象의 決定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와 그 原因을 分析하기 위하여 政府가 設定한 綜合貿易商社의 諸指定要件을 獨立變數, 各 商社의 經營成果를 從屬變數로 하는 重回歸分析技法을 韓國綜合貿易商社라는 限定된 母集團에 대하여 適用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는 具體的 分析에 앞서 從屬變數, 獨立變數, 그리고 統計集團에 대한 概念設定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1. 從屬變數

企業의 經營成果를 評價하는 기준으로서 일반적으로 成長性(growth, performance), 安定性 또는 危險性(risk), 收益性(profitability), 流動性(liquidity) 및 價値性(value)의 다섯 가지側面을 들 수 있다.⁽³⁾ 이 중 流動性은 固定資產이 大規模로 요구되는 裝置產業의 경우, 또는 固定資產의 性格上 資產構造의 變化를 長期的으로 分析해야 할 경우에 必要한側面이므로 本稿에서 시도하는 非裝置產業型이며 歷史가 日淺한 綜合貿易商社의 經營分析에서는 일 단除外키로 한다. 價値性은 企業과 專門經營者的 能力を 公開的, 自律的 그리고 客觀的인 株式市場의 株價變動 메카니즘에 의하여 判斷할 수 있다는前提下에서 適用할 수 있는 評價基準인데, 비록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으로 株式公開를 規定하고 있다 할지라도 現在와 같이 非彈力的이고 非自律的인 韓國 株式市場의 與件에서는 經營成果의 評價基準으로서 不

(3) Raymond G. Schultz & Robert E. Schultz, *Basic Financial Management*, pp. 69-70.

適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 分析에서는 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를 評價하는 基準으로서 成長性, 安定性 및 收益性의 세 側面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成長性

企業의 成長性을 評價하는 代位變數(proxy variable)로는 一般的으로 賣出額年成長率 또는 資本回轉率을 使用할 수 있다. 다만 韓國의 綜合貿易商社가 政府의 輸出드라이브政策의 一環으로서 設立되었다는趣旨를 감안할 때 本稿에서 考察하고 있는 綜合貿易商社 經營成果의 基準으로서 輸出額年成長率을 成長性測定의 代位變數로 採擇하는 것이 合當할 것이다. 따라서,

$$Y_1 = \text{輸出額年成長率}$$

② 安定性

企業의 安定性에 대해서는 自己資本比率, 固定財務費補償率 등의 財務比率이 一般的으로 使用되나, 첫째 綜合貿易商社의 特징이라고 볼 수 있는 他人資本에 대한 높은 依存度, 둘째 高金利私債에 의한 平均金利의 上昇과 이에 따른 限界負債費用, 限界自己資本費用이라는 畸形的인 韓國金融市場의 狀況, 이상의 두가지 여건을勘案할 때 企業의 安定性을 위해서는 一定水準 以上의 自己資本維持가 必要하다는前提下에 自己資本比率을 採擇하기로 한다. 따라서,

$$Y_2 = \text{自己資本比率}$$

③ 收益性

企業의 收益性에 대해서는 賣出額利益率, 資本利益率 등의 指標를 사용할 수 있다. 즉, 賣出額을 企業活動의 結果라고 보아 收益性을 企業活動에 대한 效果性의 測定이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賣出額利益率을 채택할 수 있다.

$$Y_3 = \text{賣出額利益率}$$

한편 綜合商社 財務構造의 特징을 높은 負債比率로 본다면 商社의 實質 收益性을 나타내는 代位變數로서 資本利益率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Y_4 = \text{資本利益率}$$

특히, 일반적으로 製造業의 경우에는 賣出額利益率의 分析이 타당할지 모르나, 代行輸出과 같이 收益力의 기반이 賣出額의 規模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지 않는 綜合貿易商社의 경우에는 資本利益率이 收益性의 代位變數로서 더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 는 일단 兩者를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

2. 獨立變數

企業의 經營成果에 영향을 미치는 變數로서는 企業이 屬하는 社會에 內在하는 無數한 要素가 存在할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政府에 의하여 指定되고 그 指定趣旨에 따라 運營되는 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가 政府의 綜合商社에 對한 戰略에 의하여 左右될 것이라는 假定下에 政府가 規定하고 있는 指定要件 및 戰略方案에 관한 諸要素를 獨立變數로 使用하기로 한다. 이러한 諸要素로서, 1978년 현재 政府가 구체적인 指定要件으로 規定하고 있는 ① 100만달러 以上 輸出品目數, ② 100만달러 以上 輸出國家數, ③ 海外支社數 및 이러한 구체적 指定要件에서 默示的으로 期待하고 있는 ④ 輸出製品의 多樣化, ⑤ 輸出地域의 多邊化, 그리고 政府가 이러한 要件을 通해서 長期的으로 追求하고 있는 ⑥ 重工業製品의 輸出比率과 ⑦ 後進國市場浸透 등 일곱個 變數를 採擇하기로 한다. 다만 그 성격에 따라 ①④⑥間, 그리고 ②③⑤⑦間에는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이 存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回歸分析時 충분한 檢討를 해야 할 것이다.

- ① 100만달러 以上 品目數
- ② 100만달러 以上 國家數
- ③ 海外支社數

以上의 세 變數에 대한 統計值는 具體的인 數字로 表現되므로 새로운 修飾이 없이 資料蒐集에서 抽出되는 自然數 그대로를 使用하기로 한다. 따라서,

$$X_1 = 100\text{만달러 以上 品目數}$$

$$X_2 = 100\text{만달러 以上 國家數}$$

$$X_3 = \text{海外支社數}$$

④ 製品多樣化係數

製品多樣化는 抽象的인 性格을 가진 概念이므로 이에 대한 代位變數를 使用해야 한다. 通俗的으로는 위에서 採擇한 것과 같이 一定水準 以上的 輸出實績을 올린 品目의 數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政府에서 이러한 非科學的 變數를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으로 採擇한 결과 섬유, 시멘트 등 한 두개의 特殊品目에 偏重되어 있는 一部商社에서 要件을 갖추기 위한 便法으로 他會社의 實績을 買入하거나 品目交換 등의 非生產的인 手段을 동원하는데 따라 생기는 非理가 存在할 수 있다는 點을 考察하여 볼 때, 이보다 더 合理的인 變數를 開發할 必要가 생긴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는 우선 Balassa⁽⁴⁾에 의하여 開發된 “示顯

(4) B. Balassa,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 Social Studies, 1965, 5, pp. 99-123.

된 比較優位性”(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이라는 概念을 생각할 수 있다. “示顯된比較優位性”이란 一定한 商品의 全世界輸出額에 대한 自國輸出額의 相對的 重要性을 나타내는 指表로서 數學的으로는 다음과 같이 表示된다.

$$I_j^h = \frac{X_j^h}{X_j} / \frac{X^h}{X}$$

I_j^h : j 國으로부터 輸出되는 h 商品의 全世界輸出額에 대한 相對的 重要度

X_j^h : j 國의 h 商品 輸出額

X_j : j 國의 總輸出額 ($= \sum^h X_j^h$)

X^h : h 製品의 全世界 貿易(輸出)總額

X : 全世界貿易總額 ($= \sum^h X^h$)

만일 I_j^h 의 數值가 1일 때 j 國의 輸出에서 h 製品이 차지하는 重要性은 全世界貿易에서 h 製品이 차지하는 重要性과 같고, 모든 輸出製品에 대해서 I_j^h 의 値이 모두 1이라면 j 國의 輸出製品構成比는 全世界貿易의 構成比와 同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j 國의 輸出品目的 多樣化는 各 製品 j 에 대해서 I_j^h 의 値이 1일 때, 數式으로는 $\sum^h |I_j^h - 1| = 0$ 일 때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品目多樣化係數를 國家가 아닌 一個企業에 適用하는 데에는 몇 가지 無理가 따른다. 첫째 一國의 輸出에는 1, 2, 3次 產業製品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企業의 경우는 이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韓國의 輸出은 綜合貿易商社와 一般貿易商社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政府는 兩者의 特性에 따른 分化를 期待하고 있으며 따라서 綜合貿易商社의 品目多樣化의 基準으로 韓國輸出製品의 構成比를 適用하는 것은 合當치 않다. 셋째 12個 綜合貿易商社 간에도 그 背景 및 成長過程에 따라 品目面에서 많은 性格差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無視한 基準에 의한 多樣化係數는 各 會社間의 多樣化정도를 比較하는데 不適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本稿에서는 새로운 品目多樣化係數의 開發을 도모하였다.

$$ID_m = 1 - \sum^h (X_m^h / X_m)^2$$

ID_m : 會社 m 의 品目多樣化係數

X_m^h : 會社 m 의 h 製品 輸出額

X_m : 會社 m 의 總輸出額 ($= \sum^h X_m^h$)

위의 數式에서 表現되는 品目多樣化係數 ID_m 는 1을 除外한 0~1의 可變域을 가진다. 예를 들어 极 단적으로 A會社의 輸出品이 單一品種으로 되어 있을 경우:

$$h=1$$

$$\begin{aligned}
 X_A^k &= X_A^1 = X_A \\
 \therefore ID_A &= 1 - \sum_{k=1}^h (X_A^k / X_A)^2 \\
 &= 1 - \sum_{k=1}^1 (X_A^1 / X_A)^2 \\
 &= 1 - (1/1)^2 \\
 &= 0
 \end{aligned}$$

따라서 ID_A 의 값이 0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B會社의 輸出이 100개 品目에 各各 1% 씩의 構成으로 이루어졌다면 :

$$\begin{aligned}
 h &= 100 \\
 X_B^1 &= X_B^2 = \dots = X_B^{100} = 1/100 X_B \\
 \therefore ID_A &= 1 - \sum_{k=1}^h (X_B^k / X_B)^2 \\
 &= 1 - \{(X_B^1 / X_B)^2 + (X_B^2 / X_B) + \dots + (X_B^{100} / X_B)\} \\
 &= 1 - 100(1/100)^2 \\
 &= 0.99
 \end{aligned}$$

따라서 ID_B 의 값이 0.99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品目多樣化係數 ID_m 는 다음과 같은 特性을 가진다. 첫째, 0~1이라는 可變域의 限界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一定數值에 대하여 固有한 意味를 부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會社間의 多樣化정도를 비교하는데 適合하다. 둘째, 一定品目的 比重을 自乘하여 나오는 數值이므로 品目數가 적어도 비교적 輸出額이 分散된 會社보다는 品目數가 많아도 한두개 品目에 偏重된 會社에게 不利한 數值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개 품목에 25%씩 輸出額構成比를 가진 C회사의 ID_m 數值은 0.75인데 반하여 11개 品目中 1個에 99% 나머지 10개 品目에 各各 1%씩의 輸出額構成比를 가진 D회사의 ID_D 數值은 0.189가 된다. 셋째, 會社에서 新製品을 獨占的으로 開發輸出하는 경우 위에서 言及한 “示顯된 比較優位性”에 의하여 多樣化를 測定할 때는 逆效果가 나오는데 反해서 ID_m 數值에 의하면 多樣化의 程度가 上昇한다. 이러한 論理에 의하여 ID_m 를 品目多樣化의 代位變數로 採擇하기로 한다. 따라서,

$$X_4 = ID_m$$

다음으로 여기서 決定해야 할 것은 輸出品目の 分類方法이다. 本 研究에서는 CCCN(關稅行政統計分類表)에 따라 99개 品目으로 分類하였다. 이는 다시 重化學工業製品, 農水產製品, 鐵產品, 輕工業製品, 其他의 6개 부문으로 나누었다(〈참고표-1〉참조).

⑤ 地域多邊化係數

地域의 多邊化에 대해서도 製品의 多樣化의 경우와 같이 政府에서는 一定水準 以上的의 輸

出實績을 올린 國家數로서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을 삼고 있으나 이러한 基準이 非科學的이라는 것은 앞에서 製品의 多樣化 論議時 검토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한 代案으로서 A.J. Brown에 의하여 開發된 “貿易結合度”(Intensity of Trade)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⁵⁾

$$I_{jk} = \frac{X_{jk}}{X_j} / \frac{M_k}{M}$$

I_{jk} : j 國의 k 國에 대한 貿易結合度

X_{jk} : j 國의 k 國에 대한 輸出額

X_j : j 國의 總輸出額 ($= \sum^k X_{jk}$)

M_k : k 國의 總輸入額 ($= \sum^j X_{jk}$)

M : 全世界의 總輸入額 ($= X = \sum^j X_j = \sum^k M_k$)

그러나 以上과 같은 貿易結合度에도 “示顯된 比較優位性”이 가진 弱點이 적용되는 까닭에 本稿에서는 새로운 變數를 개발하였다.

$$AD_m = 1 - \sum^k (X_{mk}/X_m)^2$$

AD : 會社 m 의 地域多邊化係數

X_{mk} : 會社 m 의 地域 k 輸出額

X_m : 會社 m 의 總輸出額 ($\sum^k X_{mk}$)

AD_m 에 대한 分析은 ID_m 의 경우에 準한다. 따라서,

$$X_5 = AD_m$$

여기서도 ID_m 의 경우와 같이 輸出地域의 分類方法을 결정하여야 한다. 統治權을 가진 各國家別로 地域을 分類할 수도 있겠으나, 本稿에서는 先進國으로서 北美, 西歐, 日本, 大洋洲, 後進國으로서 아시아, 中東, 中南美, 아프리카의 8個地域으로서 輸出地域을 分類하기로 한다(<참고표-2> 참조).

⑥ 重工業製品 輸出比率

政府는 綜合貿易商社指定要件으로 重工業製品에 대한 輸出促進을 明示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特殊商社인 高麗貿易을 除外한 11개 綜合貿易商社가 각기 韓國의 大財閥그룹의 一員이라는 點과 政府가 이러한 大財閥그룹을 通하여 重工業育成을 시도하고 있다는 點을 감안하여 볼 때 間接的으로나마 政府가 綜合貿易商社에 의한 重工業製品 輸出에 期待를 가진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綜合貿易商社의 總輸出額에서 重工業製品이 차지하고 있

(5) A.J. Brown, Applied Economics "Aspects of World Economy in War and Peace," Rinehart London, 1948, pp. 212-226.

는 比重을 하나의 獨立變數로 採擇하였다. 따라서,

$$X_6 = \text{會社 } m \text{의 重化學製品 輸出額} / \text{會社 } m \text{의 總輸出額}$$

⑦ 後進國 輸出比率

後進國市場의 開拓에 대해서 政府는 中東에 15%, 中南美에 3%, 아프리카에 3% 以上 輸出하는 것과, 以上 3個 地域에 各 2개 이상의 支社를 設置할 것을 1977年度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으로 規定하였으나 1978年 以後 이 條件을 刪除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大型化된 綜合貿易商社를 通하여 後進國의 市場에 浸透하려고 하는 戰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綜合貿易商社의 總輸出額에서 後進國市場에 대한 輸出額이 차지하고 있는 比重을 獨立變數로 採擇하였다. 따라서,

$$X_7 = \text{會社 } m \text{의 後進國市場 輸出額} / \text{會社 } m \text{의 總輸出額}$$

3. 統計集團

一章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75년 4월 「綜合貿易商社 指定 등에 관한 要領」發表後 1980년 12월까지 모두 13個의 綜合貿易商社가 指定되었으나 그중 栗山, 三和, 韓一이 탈락하여 1981년 4월 현재 10個의 商社가 活動을 하고 있다. 다만 이중 高麗貿易만은 政府에 의하여 從來의 少額輸出專擔業體인 韓國輸出振興株式會社를 發展的으로 해체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다른 9個 綜合貿易商社와는 그 由來, 設立動機, 目的, 營業內容 및 規模面에서 많은 差異點을 갖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栗山, 三和, 韓一, 高麗貿易을 제외한 나머지 9個 綜合貿易商社를 對象으로 하여 1977年度, 1978年度, 1979年度, 1980年度의 統計資料를 蒐集하였다. 또한 綜合貿易商社가 설립된 후, 적어도 1年이 지나야 정상적인 綜合商社活動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하여, 綜合商社로 지정된 1年後의 것부터 統計分析을 위한 標本數에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錦湖, 半島, 鮮京, 現代, 曉星의 1977年度 資料와 現代의 1978年度 資料를 제외한 30個의 標本數가 확보되었다. 從屬變數와 獨立變數에 대한 統計資料는 〈表 3〉에 集計되어 있다.

III. 獨立變數와 從屬變數의 假說設定

여기에서는 統計的인 檢證에 앞서 假說을 設定하기로 한다. 우리는 Ⅱ章에서 從屬變數로서 4個(Y_1, Y_2, Y_3, Y_4), 獨立變數로서 7개(X_1, X_2, \dots, X_7)를 採擇하였다. 이에 따라 假說의 數도 4×7 도합 28개가 導出된다.

〈表 3〉 종합부역상사의 내부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자료

		X_1 100만 불이상 수출 품목수	X_2 100만 불이상 수출 국가수	X_3 해외 지사수	X_4 제 품 다양화 계 수	X_5 지 역 다변화 계 수	X_6 중화학 공업화 계 수	X_7 후진국 침투계수	Y_1 매출액	Y_2 자기자본 비율	Y_3 매출액 이익률	Y_4 자본 이익률
國際	77	22	25	14	0.4761	0.6104	24.79	10.75	30.7	26.5	2.4	15.8
	78	26	30	18	0.5003	0.6646	31.69	15.76	47.1	20.7	1.5	13.7
	79	32	32	20	0.5669	0.7311	37.10	20.67	49.2	14.8	0.7	9.3
	80	31	45	24	0.5926	0.7673	40.79	31.95	110.0	11.1	0.5	11.0
錦湖	(77)	21	20	21	0.7537	0.7909	62.92	36.25	110.8	14.2	1.3	19.2
	78	22	30	21	0.7301	0.7858	61.72	26.19	52.8	13.0	1.2	18.7
	79	17	33	21	0.7084	0.8159	64.36	42.84	44.3	8.9	0.6	15.3
	80	22	40	20	0.6760	0.7103	76.29	56.25	63.6	7.1	0.4	14.7
大宇	77	24	32	31	0.4219	0.6697	21.43	21.54	51.8	25.7	5.0	26.1
	78	34	41	40	0.5470	0.6793	33.82	23.56	107.7	24.9	3.2	19.0
	79	43	53	45	0.6186	0.7569	46.31	31.42	58.3	22.5	1.7	16.0
	80	43	54	56	0.6405	0.7984	46.74	38.35	50.8	20.6	1.8	20.7
半島	(77)	21	19	21	0.7639	0.7884	45.70	21.45	66.3	9.3	0.5	18.2
	78	29	26	22	0.5980	0.7526	49.70	21.41	7.43	10.8	0.4	13.9
	79	31	35	22	0.6832	0.7802	57.49	21.34	33.1	10.7	0.5	20.8
	80	31	37	23	0.6785	0.8176	65.70	35.98	34.8	13.7	0.1	3.7
三星	77	34	31	24	0.6351	0.8099	34.70	37.06	88.8	12.0	0.2	12.3
	78	38	36	29	0.6330	0.7737	42.33	24.95	22.6	14.8	0.3	5.2
	79	39	40	29	0.6257	0.8064	53.71	31.54	67.9	9.4	0.1	3.7
	80	43	53	35	0.6647	0.8319	54.65	47.27	92.7	14.1	0.3	8.5
鮮京	(77)	26	26	23	0.5541	0.8193	18.16	40.49	139.3	9.8	8.5	13.5
	78	29	32	23	0.5039	0.7803	21.85	28.95	37.4	11.8	0.9	13.8
	79	31	34	28	0.5489	0.8115	28.72	34.90	23.5	9.6	1.1	20.3
	80	28	39	28	0.5533	0.3285	34.87	34.86	218.9	6.2	0.3	7.6
雙龍	77	11	16	23	0.6465	0.7332	27.51	72.94	5.6	9.2	1.0	16.7
	78	23	26	22	0.7110	0.7674	32.15	60.51	159.6	6.6	0.5	15.3
	79	30	31	24	0.7283	0.7952	52.68	47.57	112.0	8.5	0.3	9.2
	80	34	31	24	0.7091	0.8012	54.13	55.65	58.8	7.6	0.3	16.4
現代	(77)	14	10	13	0.1061	0.1044	96.23	23.89	0	48.0	0.2	9.3
	(78)	24	27	16	0.3693	0.0678	81.54	63.35	233.5	33.8	0.9	11.1
	79	26	37	22	0.2959	0.7421	85.09	59.45	85.5	28.3	0.6	16.3
	80	26	46	27	0.2338	0.7957	90.78	62.92	87.1	5.4	0.3	10.9
曉星	(77)	15	24	19	0.6543	0.1893	46.03	41.29	62.5	14.5	0.9	6.2
	78	26	38	23	0.6865	0.3132	52.49	41.13	122.8	8.9	1.2	13.9
	79	35	42	27	0.6966	0.8166	55.17	35.84	67.7	5.5	0.4	7.6
	80	36	42	26	0.6907	0.8106	61.22	50.47	64.5	5.9	0	0.1

다음에서 각 從屬變數에 對한 假說을 設定하기로 한다.

1. 成長性에 對한 假說

I章에서 우리는 政府가 輸出促進 政策의 一環으로 綜合貿易商社를 設立한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政府가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으로 規定하거나, 또는 그러한 要件을 通해서 達成하고자 하는 戰略方向은 모두 輸出의 成長率을 높이기 위한 方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政府의 施策이 과연 現實的으로 輸出成長率 提高에 效果를 냈는가를 檢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假說을 設定한다.

GH_1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100만달러 以上 輸出品目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 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여기에서 GH_1 은 成長性에 關한 첫번째 假說을 指稱한다.

GH_2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100만달러 以上 輸出國家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 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成長率은 높다.”

GH_3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海外支社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成長率은 높다.”

GH_4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輸出品目多樣化係數가 높은 綜合貿易商社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GH_5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輸出地域多邊化係數가 높은 綜合貿易商社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GH_6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重化學製品輸出比率이 높은 綜合貿易商社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GH_7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後進國輸出比率이 높은 綜合貿易商社일수록 그 商社의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以上과 같이 綜合貿易商社의 成長性에 對해서 7개의 假說을 設定할 수 있다. 이러한 假說 하나하나를 統計的으로 檢定하여 採擇이 되면, 해당하는 獨立變數가 從屬變數에 對해서 가진 統計的 關係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變數에 對한 政府의 戰略이 輸出伸張에 奏效했다는 것을 肯定的으로 받아 들여도 無妨할 것이다. 反面 檢定의 結果 이러한 假說을 棄却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獨立變數가 從屬變數에 對해서 가진 統計的 關係를 否認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變數에 對한 政府의 戰略이 輸出伸張에 미친 效果를 認定할 수 없을 것이다.

2. 安定性에 對한 假說

I章에서 우리는 政府가 指定한 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가 期待 以下로 떨어진 것을 考察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政府의 綜合貿易商社育成戰略이 長期的인 觀點에서 輸出伸張을 도모하기 위한 手段인 反面, 이들의 短期的인 經營成果에는 不利한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는 假定下에 다음과 같이 安定性에 關한 假說을 設定하기로 한다.

RH_1 :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100만달러 以上 輸出品目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 일수록 그 商社의 自己資本比率은 낮다.”

여기에서 RH_1 은 安定性에 關한 첫번째 假說을 指稱한다. RH_2 以下 RH_7 까지의 內容은 GH_2 에서 GH_7 까지의 內容에 準한다. 다만 그 內容의 마지막 部分이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代身 “自己資本比率은 낮다”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3. 收益性에 對한 假說

收益性에도 安定性에서와 같은 論理가 適用된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에 대한 政府의 育成戰略이 短期的으로는 收益性에 不利한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는 假定下에 다음과 같이 假說을 設定하기로 한다.

PH_1 :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100만달러 以上 輸出品目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 일수록 그 商社의 賣出額利益率은 낮다.”

여기에서 PH_1 은 賣出額利益率에 關한 첫번째 假說을 指稱한다. PH_2 以下 PH_3 까지의 內容 역시 GH_2 에서 GH_7 까지에 準한다. 다만 그 內容의 마지막 部分이 “輸出額年成長率은 높다” 代身 “賣出額利益率은 낮다”로 바뀐은勿論이다.

賣出利益率에 關한 假說은 資本利益率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H_1 : “ 다른 모든 與件이 一定할 경우, 100만달러 以上 輸出品目數가 많은 綜合貿易商社 일수록 그 商社의 資本利益率은 낮다.”

여기에서 EH_1 은 資本利益率에 關한 첫번째 假說을 지칭한다. EH_2 以下 EH_7 까지의 內容 역시 PH_2 에서 PH_7 까지에 準한다.

IV. 統計資料의 分析

1. 相關係數表에 의한 檢討

重回歸分析에 있어서는 變數間의 多重共線性이 문제가 된다. 특히 本研究에서는 II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性格에 類似性을 띤 몇개의 變數間에 높은 相關係數가 존재할 가능성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回歸分析時 段階별回歸分析法(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는 相關係數表를 이용하여 變數間의相關關係를 알아보기로 한다. <表 4>에 있는 相關係數表에서 係數의 統計的 크기가 0.5이상인 變數의 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順序	相關係數		變數 짝
1)	-0.7163	X_5 (地域多邊化係數)	Y_2 (自己資本比率)
2)	0.7137	X_1 (百萬달러 이상 輸出品目數)	X_2 (百萬달러 이상 輸出國家數)
3)	0.7038	X_2 (百萬달러 이상 輸出國家數)	X_3 (海外支社數)
4)	0.7025	Y_2 (自己資本比率)	Y_3 (賣出額利益率)
5)	-0.6920	X_5 (地域多邊化係數)	Y_3 (賣出額利益率)
6)	0.6760	Y_4 (資本利益率)	Y_3 (賣出額利益率)
7)	0.6235	X_1 (百萬달러 이상 輸出品目數)	X_3 (海外支社數)

相關關係가 가장 높은 變數 짝은 自己資本比率(Y_2)과 地域多邊化係數(X_5)로서, -0.72라는 높은 負相關의 關係는 安定性이 높은 會社일수록 地域多邊化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지난 4年間 전반적으로 安定性이 계속 하락한 반면 地域은 보다 多邊化되었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그 적접적인 관계는 단순한 相關分析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하의 段階別回歸分析法을 적용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백만달러 이상 輸出品目數(X_1)와 백만달러 이상 輸出國家數(X_2)간의 0.71이라는 正相關으로서, 이 두 變數간의 높은 相關關係는 第三의 變數로서 綜合貿易商社의 規模를 想定해 볼때 論理的인 推測을 할 수 있다. 즉, 規模가 큰 會社일수록 백만달러 이상의 輸出品目數와 輸出國家數가 많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백만달러 이상 輸出國家數(X_2)와 海外支社數(X_3)로서, Ⅱ章에서 이미 우려한 바와 같이 X_2 와 X_3 간의 매우 높은 0.70의 正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段階別回歸分析法의 適用으로 해결될 것이다.

네째는 自己資本比率(Y_2)과 賣出額利益率(Y_3)간의 正相關으로서 自己資本比率이 높은, 즉 財務構造에 있어 安定되어 있는 會社일수록 收益性도 높다는 것을 추측케 한다.

다섯째는 地域多邊化係數(X_5)와 賣出額利益率(Y_3)간의 -0.69의 負相關關係인데, 이는 收益性을 惡화시키는 要素중의 하나로서 地域多邊化를 지적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러한 관계는 Y_2 (自己資本比率)와 X_5 (地域多邊化係數)간의 높은 負相關關係와 Y_2 (自己資本比率)와 Y_3 (賣出額利益率)간의 正相關關係로부터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表 4〉 상 관 계 수 표

X_1	1.0000											
X_2	0.7137	1.0000										
X_3	0.6535	0.7038	1.0000									
X_4	0.1475	-0.0974	0.0026	1.0000								
X_5	0.3237	0.3780	0.1697	0.4285	1.0000							
X_6	0.0274	0.3820	-0.0551	-0.0733	0.4353	1.0000						
X_7	-0.2328	0.0317	0.0071	0.0048	0.4505	0.4399	1.0000					
Y_1	0.0752	0.2072	0.0662	-0.0086	0.2468	0.0373	0.2573	1.0000				
Y_2	0.1006	0.0778	0.2781	-0.4664	-0.7193	-0.2412	-0.4621	-0.2347	1.0000			
Y_3	-0.1377	-0.0649	0.2974	-0.3403	-0.6920	-0.4858	-0.4207	-0.1494	0.7025	1.0000		
Y_4	-0.3215	-0.1999	0.1557	-0.1918	-0.4266	-0.2621	-0.1314	-0.1915	0.4422	0.6760	1.0000	

$X_1 \quad X_2 \quad X_3 \quad X_4 \quad X_5 \quad X_6 \quad X_7 \quad Y_1 \quad Y_2 \quad Y_3 \quad Y_4$

여섯째는 資本利益率과 賣出額利益率 間의 正相關關係인데, 이는 兩者의 分子가 다같이 當期純利益이란 점을 볼때 당연한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일곱째는 백만달러 이상 輸出品目數(X_1)와 海外支社數(X_3)로서, 이는 X_1 (백만달러 이상 輸出品目數)와 X_2 (백만달러 이상 輸出國家數)의 높은 正相關關係와 마찬가지로, 企業의 規模라는 第 3 的 變數를 도입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研究에서와 같이 綜合貿易商社의 일정 현상에 대해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는 以上에서 다룬 바와 같은 單純相關關係分析만으로는 變數間의 關係를 설명하는데 限界가 있게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段階別回歸分析法을 적용하여 더욱 엄밀한 分析을 시도하기로 한다.

2. 重回歸分析에 의한 檢討

(가) 成長性에 대한 重回歸分析

① 最適모델의 選定

〈表 5〉는 綜合貿易商社의 成長性을 나타내는 輸出額成長率(Y_1)에 대해서 諸獨立變數(X_1, X_2, \dots, X_7)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回歸方程式으로 보여주고 있다. 〈表 5〉에 있는 7個의 回歸方程式은 段階別回歸分析技法에 의하여 導出된 것으로서, 自由度에 의하여 조정된 相關係數(\hat{R})를 기준으로 할 때 4個의 獨立變數로 이루어진 다음의 方程式이 最適回歸方程式으로 選定된다.

$$Y_1 = 13.0052 + 3.2827X_2 - 2.1684X_3 - 1.0282X_6 + 1.2015X_7$$

이중 X_2, X_7 은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는 變數이고 X_3, X_6 는 2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는 變數이다.

〈表 5〉 성장성(Y_1)에 대한 회귀방정식 모델 : $Y_1 = b_0 + b_i X_i$

	\hat{R}	b_0	b_1	b_2	b_3	b_4	b_5	b_6	b_7
1	0.257	43.2457							0.7295*
2	0.272	7.1563		1.0147					0.7116*
3	0.274	8.0859		1.4321*				-0.5470	0.9817*
4	0.328	13.0052		3.2827**	-2.1684*			-1.0282*	1.2015**
5	0.281	-38.3331		3.0745**	-2.1079		81.3472	-1.0526*	1.0895*
6	0.207	-45.0473	-0.4445	3.2540*	-2.0008		100.1421	-1.0752*	1.0179*
7	0.047	-49.3723	-0.4111	3.1540*	-1.9678	-12.0828	118.7866	-1.0786*	0.9962*

註) **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 2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2) 選定된 모델의 해석

위의 回歸方程式에 의하면 1977~80年度 綜合貿易商社의 輸出成長率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變數는 그 신뢰도의 순서에 따라 백만불이상 輸出國家數(X_2), 後進國輸出比率(X_7), 海外支社數(X_3), 重化學工業化係數(X_6)이다. 이들 獨立變數에 대응하는 回歸係數(b_i)의 방향에 있어서 b_3 와 b_6 은 Ⅲ章에 있는 成長性의 假說인 GH_3 및 GH_6 에서와 反對方向인 負의 價值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 綜合貿易商社의 경우 指定要件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名目的으로 海外支社數를 증가시키기는 하였으나 政府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輸出伸張에 기여를 못한 것을 나타낸다. 또한 重化學製品 輸出比率이 높은 商社가 輸出成長率이 낮다는 것은 그동안의 全世界的인 不況으로 重化學工業製品에 대한 世界需要의 급격한 減少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重化學工業이 수출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백만달러 이상 輸出國家數와 後進國輸出比率은 Ⅲ章에서의 假說 GH_2 및 GH_7 과 같이 輸出成長率과 같은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백만달러 이상 輸出國家數가 많고 後進國市場에의 進出度가 높은 商社일수록 成長率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만불이상 輸出國家數와 輸出成長率간의 關係는 '77~'78년을 대상으로 한 研究에서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던 현상으로서, 그동안 綜合貿易商社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政府가 유도해온 방향으로 수출실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상이다. 한면 後進國市場進出度와 成長率이 正의 關係를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綜合貿易商社의 競爭力이 先進國市場보다는 後進國市場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나) 安定性에 대한 重回歸分析

(1) 最適모델의 選定

〈表 6〉은 綜合貿易商社의 安定性을 나타내는 自己資本比率에 대해서 諸獨立變數(X_1, X_2, \dots, X_7)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回歸方程式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自由度에 의하여 조정된 相關係數(\hat{R})가 가장 큰 것은 獨立變數의 數가 5개일 경우이나, 이때 X_6 가 20%有意水準에서도 棄却되므로, X_3, X_4, X_5 가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고 X_7 이 2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는 다음의 回歸方程式을 最適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Y_2 = 79.8593 + 0.313X_3 - 11.5942X_4 - 76.9699X_5 - 0.0840X_7$$

〈表 6〉 안정성(Y_2)에 대한 회귀방정식 모델 : $Y_2 = b_0 + b_i X_i$

	\hat{R}	b_0	b_1	b_2	b_3	b_4	b_5	b_6	b_7
1	0.716	83.1129					-90.7956**		
2	0.816	81.0703			0.3363**		-99.6522**		
3	0.822	79.8593			0.3268**	-9.0475*	-90.6578**		
4	0.822	79.8593			0.3130**	-11.5942**	-76.9699**		-0.0840*
5	0.839	77.6777			0.3319**	-8.9494*	-87.1692**	0.0649	-0.1011**
6	0.833	76.7140		-0.0680	0.3793**	-9.9053*	-83.8810**	0.0780*	-0.1118**
7	0.828	78.0038	0.0992	-0.1118	0.3572**	-10.4278*	-87.2078**	0.0828*	-0.0970*

註 **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 2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② 選定된 모델의 해석

〈表 6〉에 의하면 1977~80年度 綜合商社의 安定性을 나타내는 自己資本比率(Y_2)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變數는 地域多邊化係數(X_5)로서, 이는 地域多邊化가 떨 된 商社일수록 自己資本比率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兩者간의 70%가 넘는 相關係數는 本 研究와 같은 會社間의 分析(cross-sectional analysis)에서 일기 어려운 매우 높은 數值라는 것을 감안할 때 地域多邊化가 自己資本比率에 미치는 逆效果에 대해서 비교적 확실한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두번째로 채택된 海外支社數는 正의 回歸係數値를 나타내어, 海外支社數를 많이 가진 商社일수록 安定性이 낮으리라는 假說 RH_3 를 뒤엎고 있다.

세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品目多樣化係數(X_4) 역시 負의 回歸係數를 가지고 있다 는 점에서 假說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後驗的(a posteriori)으로 판단해 보면 安定性을 獨립변수로 보아 안정성이 높을수록 해외지사를 설치할 능력이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일단 이러한 평가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 다만 가설 RH_3 를 기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치기로 한다.

끝으로 後進國輸出比率(X_7)은 負의 回歸係數値를 가지고 있어 假說 RH_7 과 일치한다. 이

는 後進國市場進出度가 높은 會社일수록 安定性이 낮은 것을 나타낸다.

(다) 收益性에 대한 重回歸分析

① 最適모델의 選定

〈表 7〉은 綜合貿易商社의 收益性을 나타내는 賣出額利益率에 대해서 諸獨立變數($X_1, X_2 \dots X_7$)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回歸方程式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表 8〉은 資本利益率에 대해서 諸獨立變數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回歸方程式으로 보여주고 있다. 〈表 7〉에서 볼 수 있듯이 自由度에 의하여 調整된 相關係數(\hat{R})의 크기에 따라 賣出額利益率에 대한 回歸方程式은 다음 式을 最適으로 삼는다.

$$Y_3 = 9.0882 - 0.0747X_1 + 0.0920X_3 - 9.7463X_5 - 0.0221X_7$$

여기서 X_1, X_3, X_5, X_7 은 모두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資本利益率의 경우 〈表 8〉에서 볼 수 있듯이 自由度에 의하여 조정된 相關係數(\hat{R})가 가장 큰 것은 獨立變數의 數가 4個일 경우이나 이때 X_5 가 20의 有意水準에서도 棄却되므로, 모두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되는 다음의 回歸方程式을 最適으로 삼는다.

$$Y_4 = 43.9337 - 0.4914X_1 + 0.4420X_3 - 35.8865X_5$$

〈表 7〉 수익성(Y_3)에 대한 회귀방정식 모델 : $Y_3 = b_0 + b_i X_i$

	\hat{R}	b_0	b_1	b_2	b_3	b_4	b_5	b_6	b_7
1	0.692	11.3617					-13.5329**		
2	0.802	11.0345			0.0538**		-14.9513**		
3	0.830	10.6722	-0.0454**		0.0788**		-13.5716**		
4	0.863	9.0882	-0.0747**		0.0920**		-9.7463**		-0.0221**
5	0.862	8.8986	-0.0723**		0.0894**		-9.2575**	-0.0059	-0.0196**
6	0.861	8.6057	-0.0727**		0.0880**	-0.8606	-7.9791**	-0.0076	-0.0207**
7	0.855	8.6638	-0.0759**	0.0085	0.0838**	-0.7431	-8.2132**	-0.0091	-0.0201**

註) **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表 8〉 수익성(Y_4)에 대한 회귀방정식 모델 : $Y_4 = b_0 + b_i X_i$

	\hat{R}	b_0	b_1	b_2	b_3	b_4	b_5	b_6	b_7
1	0.427	48.8928					-46.2843**		
2	0.462	47.8510			0.1715*		-50.8017**		
3	0.638	43.9337	-0.4914**		0.4420**		-35.8865**		
4	0.647	37.6965	-0.6065**		0.4939**		-20.8239		-0.0871
5	0.636	36.6399	-0.5490**	-0.1214	0.5451**		-17.9182		-0.0832
6	0.622	37.0896	-0.5379**	-0.1678	0.5767**		-19.0085	0.0266	-0.0931
7	0.602	36.1344	-0.5305**	-0.1899	0.5840**	-2.6686	-14.8906	0.0258	-0.0979

註) ** 1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 20%의 有意水準에서 채택

② 選定된 모델의 해석

1977~80年度 綜合貿易商社의 收益性을 나타내는 賣出額利益率(Y_3)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變數는 그 신뢰도의 순서에 따라 地域多邊化係數(X_5), 海外支社數(X_3), 백만불이상 輸出品目數(X_1), 後進國輸出比率(X_7)이다. 이중 X_1 , X_5 , X_7 은 PH_1 , PH_5 , PH_7 의 假說과 같아, 負의 回歸係數를 가지고 있다. 이는 백만불 이상 輸出品目數가 많을 수록, 地域多邊化係數가 높을수록, 後進國輸出比率이 높을수록 賣出額利益率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X_3 만은 假說 PH_3 와 달리 正의 回歸係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海外支社數가 많은 商社일수록 收益性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賣出額利益率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數는 資本利益率에도 유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만 資本利益率에 있어서는 後進國輸出比率(X_7)이 有意水準에서 기각되어 있는데, 이는 後進國 輸出比率이 資本의 效率性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라) 成長性, 安定性 및 收益性에 대한 종합적 검토

〈表 9〉는 4個의 從屬變數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다고 重回歸分析에 의하여 인정된 獨立變數를 一括으로 보여주고 있다. 回歸分析의 결과에 대해서는 1977~78年度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1977~80年度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모두 기재함으로써 보다 客觀的인 檢討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우선 Y_1 , Y_2 , Y_3 , Y_4 를 從屬變數로 하는 回歸方程式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後進國輸出比率(X_7)을 보면 GH_7 , RH_7 , 및 PH_7 에서 기대한 바와同一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表 9〉 重回歸分析의 整理

	成長性		安定性		收 益 性				
	Y_1 (수출액 성장율)		Y_2 (자기자본비율)		Y_3 (매출액 이익률)		Y_4 (자본이익률)		
	가정	회귀분석의 결과		가정	회귀분석의 결과		가정	회귀분석의 결과	
		'77 ~'78	'77 ~'80		'77 ~'78	'77 ~'80		'77 ~'78	'77 ~'80
X_1 (100만불이상 수출품목수)	+		-		-	-	-	-	-
X_2 (100만불이상 수출국가수)	+		+	-		-	-	-	-
X_4 (해외지사수)	+	-	-	-	+	+	-	+	+
X_4 (제품 다양화 계수)	+	+	-	-	-	-	-	-	-
X_5 (지역 다변화 계수)	+		-	-	-	-	-	-	-
X_6 (중화학 공업화 계수)	+	-	-	-	-	-	-	-	-
X_7 (후진국 침투 계수)	+	+	+	-	-	-	-	-	-

* 二年前 研究時에는 자본이익률에 대한 分析을 하지 않았음

註) ** + : 正의 回歸係數值

*** - : 負의 回歸係數值

後進國市場進出이 長期的인 成長을 위해서는 필수적이지만 당장의 安定性 및 收益性에는不利한 戰略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綜合貿易商社가 勞動集約의인, 따라서 原價面에서 比較優位에 있는 輕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하여 이미 販賣組織이 확립되어 있는 先進市場의 外國바이어를 통해서 輸出을 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現地 마아케팅 能力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後進國 市場浸透에서 바람직한 經營成果를 보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現象은 地域多邊化係數(X_5)가 安定性 및 收益性에 逆效果를 미친다는 回歸分析結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장성에 있어서 GH_7 의 채택과 GH_5 의 기각을 서로 관련지어 고찰하면, 現地마아케팅能力이 開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先進市場이라 할지라도 輸出能力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즉 地域多邊化가 先進國사이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輸出伸張效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Y_1 과 X_5 의 非相關性)은 現在 우리나라 主力 輸出製品의 상당수가 先進國의 輸入規制에 뒤여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海外支社數(X_3)는 Y_1, Y_2, Y_3, Y_4 에 모두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그 效果는 假說 GH_3, RH_3, PH_3 및 EH_3 와 모두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海外支社數가 많은 會社일수록, 輸出成長率이 낮고, 自己資本比率은 높으며, 賣出額利益率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海外支社의 設立이 1~2名 정도의 小數社員 派遣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設置費가 비교적 낮으며 따라서 海外支社數가 會社의 安定性 및 收益性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극히 미미한 반면에, 本研究에서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企業規模가 큰 會社일수록支社數가 많고 또 安定性과 收益性도 높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成長面에서는 海外支社數가 많을수록 精銳部隊가 아닌 支社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支社全體의 平均 成果를 나타내는 輸出成長率이 낮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100만불 이상 輸出品目數(X_1)가 收益性에 미치는 영향은 Ⅱ章에서 우려하였던 바(PH_1)대로, 輸出品目數가 많을수록 收益性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77~78年度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가 거듭될수록 무리하게 輸出品目數를 증대시킴으로써 收益性을 惡化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0만불 이상 輸出國家數(X_2)가 많을수록 成長性(Y_1)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1977~78年度까지는 나타나지 않던 現象으로서 綜合貿易商社의 營業活動이 기틀을 잡아감에 따라, 綜合貿易商社가 輸出하는 國家數를 늘려갈 뿐 아니라 기존 수출국가에 대해서도 꾸준히 수출을 계속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77~78年度 당시 製品의 多樣化(X_4)는 成長性(Y_1)과 正의 回歸係數를 가지고 있었으나 1977~80年度의 분석결과에는 양자간에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製品이 多樣化되더라도 成長率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多樣化의 限界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安定性(Y_2)에 대해서는 우리가 Ⅱ章에서 기대한 바대로 여전히 負의 回歸係數를 나타내고 있어 多樣화가 당장의 安定性에는 不利한 戰略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77~78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綜合商社가 섬유 또는 신발類 등의 소수품목을 기반으로 하여 輸出品目的 多樣化를 피해야 했으므로, 축적된 경험이 별로 없는 새로운 분야의 제품을 취급했어야 하기 때문에 收益性(Y_3)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음에 따라 製品多樣화가 반드시 收益性에 악영향을 가져오지는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重化學輸出比率(X_6)은 成長面에서 假說 GH_6 과는 달리 負의 效果를 보이고 있다. 重化學工業이 輸出伸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世界的인 不景氣로 인하여 重化學製品輸出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1977~78年度 分析結果에서는 重化學製品輸出이 收益性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의 원인을 國際競爭力에서 찾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競爭力を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論

지금까지 綜合貿易商社의 성격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變數가 商社의 成長性, 安定性 및 收益性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分析하여 보았다. 이러한 分析의 結果로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成長性, 安定性, 收益性간의 關係 : 政府는 長期的 안목에서 綜合貿易商社를 育成하기 위한 方案으로서 品目多樣化, 地域多邊化, 重化學製品輸出強化, 後進國市場浸透強化 등의 戰略을 實施하고 있으나, 이러한 要素들은 短期的으로 綜合貿易商社의 安定性 및 收益性을 惡化($X_4 - Y_2$, $X_5 - Y_2$, $X_5 - Y_3$, $X_5 - Y_4$, $X_7 - Y_3$)시키고 있다. 물론 長期的인 側面에서 이러한 輸出政策은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短期的 逆效果에 對해서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制度的措置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制度的措置에 대한 代案으로서는 여러가지 方案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예컨대 輸入에 대한 惠澤, 金融支援制度, 資本自由化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政府의 綜合貿易商社 指定要件에 대한 문제점 :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件은 그동안

數次 수정되어 왔고, 특히 1981년 1월의 6次 수정을 통해 綜合貿易商社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던 海外支社設置要件問題 등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즉흥적으로, 또는 業界의 要求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가 우리나라 經濟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本稿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각의 指定要件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하여 더욱 엄밀한 分析을 거친 후에 指定要件의 체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VI. 本研究의 限界性 및 앞으로의 研究方向

以上에서 政府의 諸育成政策이 綜合貿易商社의 成長性, 安定性 및 收益性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9個 綜合貿易商社의 4年에 걸친 資料에 의하여 前章과 같은 結論이 推出되었으나, 이러한 結論은 統計資料가 客觀性 및 精密性을 가질 때만이 可能한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外部에 公表된 資料만을 使用했으므로 일단 客觀性은 認定된다고 하겠으나, 外部發表用 資料가 갖기 쉬운 資料의 非精密性은 回避할 수 없다. 또한 綜合貿易商社의 歷史가 日淺하여 企業內部에서도 아직 經營體系가 安定되어 있지 않아 통계자료의 개념 自體가 회사마다 다르고, 또한 統計數 자체가 30개에 불과한 까닭에 小標本이 가지기 쉬운 誤謬 역시 完全히 排除할 수 없다. 그리고 綜合貿易商社의 經營成果를 나타내는 從屬變數의 選定에서도 研究의 便易性을 고려하여 成長性, 安定性 및 收益性에 대하여 각각 한 두個의 代位變數만을 택하였으므로 다른 代位變數를 택하게 되면 本研究와 다른 結果를 가져올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또한 分析資料의 期間이 1977年에서 1980年까지 불과 4年の 短期間임을 감안하여 볼 때 本研究의 結果가 長期的인 戰略提示에 不適合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綜合貿易商社의 歷史가 더 축적된 후에 長期的인 觀點에서 會社간의 戰略 및 經營成果 比較뿐만 아니라 時系列分析(time series analysis)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本研究에서 綜合商社라는 複合的인 有機體를 政府의 育成方案이라는 側面에서만 보았다는 것은 盲人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研究의 不足한 點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여러가지의 研究分析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研究主題로서는 綜合貿易商社 經營者의 戰略 또는 關聯企業의 觀點에서 보는 戰略 등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의 分析技法인 重回歸分析으로 各 變數간의 統計的 關係는 밝힐 수 있으나, 이들간의 因果關係에 대해서는 확실한 結論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變數간의 原因

과結果를 철저히 紛明하기 위해서는 現實의 狀況과 그 問題點을 具體的으로 파고 들어 갈 수 있는 事例分析法(case study)을 使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参考표 1) 國家別 分類

I. 後進國	II. 예 타 르	III. 맨 브	IV. Yemen
1. 아시아			
① 중 국	Republic of China	⑯ 오 만	Qatar
② 필 리 핀	Philippine	⑰ 바 인	Oman
③ 홍 콩 (영)	Hong Kong(Br.)	⑱ 키 프 스	Bahrain
④ 마 카 오(포르투칼)	Macao(Port.)	⑲ 멘 브	Kypros
⑤ 베 트 남	Vietnam	⑳ 월 냉	Maldives
⑥ 크 메 르	Khmer	㉑ 몽 고	North Vietnam
⑦ 라 오 스	Laos	㉒ 중 공	Mongolia
⑧ 보 르 네 이	Brunei		Communist China
⑨ 말 레 이 시 아	Malaysia		
⑩ 싱 가 포 르	Singapore	① 몬 트 세 라 드	Montserrat
⑪ 인 도 네 시 아	Indonesia	② 세 인 트 크리스토파	Saint Christoph
⑫ 타 이	Thailand	③ 쿠 바	Cuba
⑬ 버 어 마	Burma	④ 멕 시 코	Mexico
⑭ 부 탄	Bhutan	⑤ 엘 살 바 도 르	El Salvador
⑮ 네 팔	Nepal	⑥ 니 카 라 구 아	Nicargua
⑯ 파 카 스 탄	Pakistan	⑦ 코 스 타 리 카	Costa Rica
⑰ 인 디 아	India	⑧ 파 나 마	Panama
⑯ 스 리 랑 카	Sri Lanka(Ceylon)	⑨ 운 하 지 대	Canal Zone
⑰ 아프가 니 스 탄	Afghanistan	⑩ 바 베 이 도 스	Barbados
㉑ 뱅 글 라 데 쇼	Bangladesh	㉑ 자 마 이 카	Jamaica
㉒ 티 모 르(포르투칼)	Timor(Port.)	㉓ 하 이 터	Haiti
2. 중 동		㉔ 도 미 니 카	Dominica
① 이 란	Iran	㉕ 푸 에 르 토 리 코	Puerto Rico
② 이 라 크	Iraq	㉖ 아 르 헨 티 나	Argentina
③ 쿠 웨 이 트	Kuwait	㉗ 칠 레	Chile
④ 레 바 논	Lebanon	㉘ 우 루 구 아 이	Uruguay
⑤ 사우디 아라비아	Saudi Arabia	㉙ 파 라 구 아 이	Paraguay
⑥ 사우디 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중립 지대	Saudi Arabia & Kuwait Neutral	㉚ 페 르 르	Peru
⑦ 요 르 단	Jordan	㉛ 브 라 질	Brazil
⑧ 이 스 라 앤	Israel	㉜ 에 쿠 아 도 르	Ecuador
⑨ 시 리 아	Syria	㉝ 콜 르 비 아	Colombia
⑩ 케 이 자	Caza	㉞ 배 네 주 엘 라	Venezuela
㉑ 아랍 토후연방국	United Arab Emirates	㉟ 블 리 비 아	Bolivia
㉒ 남 예 맨	South Yemen	㉟ 기 이 아 나	Guyana
		㉟ 수 리 남	Surinam
		㉟ 구 아 태 말 라	Guatemala
		㉟ 운 두 라 스	Honduras

4. 아프리카

① 우 간 다	Uganda
② 케 냐	Kenya
③ 탄 자 니 아	Tanzania
④ 말 리	Mali
⑤ 이 디 오 피 아	Ethiopia
⑥ 소 말 리 아	Somalia
⑦ 니 제 르	Niger
⑧ 수 단	Sudan
⑨ 차 드	Chad
⑩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
⑪ 에 집 트	Egypt
⑫ 리 비 아	Libya
⑬ 튜 니 지 아	Tunisia
⑭ 알 제 리	Algeria
⑮ 모 로 코	Morocco
⑯ 모 리 타 니 아	Mouritania
⑰ 세 네 갈	Senegal
⑱ 감 바 아	Gambia
⑲ 기 니 아	Guinea
⑳ 시에라리온	Sierraleone
㉑ 리 베 리 아	Liberia
㉒ 잠 비 아	Zambia
㉓ 로 디 지 아	Rhodesia
㉔ 보 츠 와 나	Botswana
㉕ 마 다 가 스 칼	Madagascar
㉖ 남아프리카공화국	R·South Africa
㉗ 스 와 질 랜 드	Swaziland
㉘ 콩 고	Congo
㉙ 자 이 해	Zaire
㉚ 가 봉	Gabon

II. 先進國

1. 유럽

① 프 랑 스	France
② 이 태 리	Italy
③ 서 독	West Germany
④ 네 텔 란 드	Netherlands
⑤ 벨 기 에	Belgium
⑥ 럭 셈 부 르 크	Luxembourg
⑦ 그 리 이 스	Greece
⑧ 터 어 키	Turkey

⑨ 노 르 웨 이	Norway
⑩ 스 웨 텐	Sweden
⑪ 덴 마 아 크	Denmark
⑫ 영 국	United Kingdom
⑬ 스 위 스	Switzerland
⑭ 오 스 트 리 아	Austria
⑮ 포 르 투 칼	Portugal
⑯ 필 란 드	Finland
⑰ 아 일 랜 드	Ireland
⑱ 스 페 인	Spain
⑲ 아 이 슬 란 드	Iceland
㉑ 모 나 코	Monaco
㉒ 소 렌	U.S.S.R
㉓ 체 코 슬 르 바 키 아	Czechoslovakia
㉔ 헝 가 리	Hungary
㉕ 루 마 니 아	Rumania
㉖ 불 가 리 아	Bulgaria
㉗ 알 바 니 아	Albania

2. 북미

① 카 나 다	Canada
② 그리인란드(덴마크)	Greenland(Den.)
③ 미 국	U.S.A.

3. 일본

① 일 본	Japan
-------	-------

4. 오세아니아

① 오 스 트 레 일 리 아	Australia
② 뉴 우 지 일 랜 드	New Zealand

참고표 2) 商品別 分類

I. 重化學工業製品

1.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그 제품

① 석·프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② 도자제품

③ 유리와 그 제품

2.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① 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과 모조신변장식용품

② 주 화

3. 비(卑)금속과 그 제품

① 철강과 그 제품

② 동과 그 제품

③ 니켈과 그 제품

④ 알루미늄과 그 제품

⑤ 마그네슘·베릴륨 및 이들의 제품

⑥ 연(鉛)과 그 제품

⑦ 아연과 그 제품

⑧ 주석과 그 제품

⑨ 따로 개기한 것 이외의 비(卑)금속과 그 제품

⑩ 비(卑)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푸운
과 회오크 및 이들의 부분품

⑪ 각종의 비(卑)금속 제품

4.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①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②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5. 차량·항공기와 이들의 부분품 및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① 철도용의 기관차와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철도선로용 장비품 및 전기구동식 이외의 교통
관제용기기

② 철도용 이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③ 항공기와 그 부분품, 낙하산, 캐티펄트 기타
이와 유사한 항공기사출기와 항공용 지상훈련기

④ 선박과 수상구조물

6.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
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
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① 광학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계측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② 시계와 그 부분품

③ 악기, 녹음기 또는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또는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

7.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①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

8. 화학공업과 연관공업의 생산품

① 무기화합물·귀금속·회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의 화합물

② 유기화합물

③ 의료용품

④ 비료

⑤ 유연(鞣軟)에스와 염색 에스, 유연체와 그 유
도체, 염료·그림물감·페인트 및 와니쉬, 퍼
터·충전제와 잉크

⑥ 경유와 헤지노이드, 조제향료 및 화장품류

⑦ 비누·유기 계면활성제세제(洗劑)·조제윤활
제·인조왁스·조제왁스·연마제·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모델링페이스트와 "치과용 왁스"

⑧ 단백질계 물질, 접착제와 효소

⑨ 화약류·화공품(火工品)·성냥·발화성합금 및
조제연료

⑩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⑪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9.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 에스
테르·셀룰로우스 에에테르·천연고무·합성고
무·페티스 및 이들의 제품

① 인조수지·인조플라스틱·셀룰로우스 에스테
르·셀룰로우스 에에테르 및 이들의 제품

② 천연고무·합성고무·페티스 및 이들의 제품

II. 농·수산제품

1.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① 산동물

② 육과 식용설육

③ 어류·갑각류 및 연체동물

④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따로 개기한 것 이
외의 식용 동물성 생산품

⑤ 따로 개기한 것 이외의 동물성 생산품

2. 식물성 생산품

① 산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뿌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결화(切花) 및 장식용의 잎

②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③ 식용의 과실 및 너트와 멜론 또는 감귤류의
껍질

④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⑤ 곡물

⑥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와 전분, 글로우렌
및 이눌린

⑦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및 의료용의 식물, 짚(藁)과 사
료용 식물

- ⑧ 락, 겹·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 ⑨ 식물성 편조물을 재료와 따로 개기한 것 이외의 식물성 생산품
- 3.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남
- ①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남
- 4.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연초
- ① 육류·어류·감각류 및 연체동물의 조제품
- ② 당류와 설탕과자
- ③ 코코아와 그 조제품
- ④ 곡물·곡분 또는 전분의 조제품과 베이커리제품
- ⑤ 채소·과실 기타 식물의 부분의 조제품
- ⑥ 각종의 조제 식료품
- ⑦ 음료·알코올 및 식초
- ⑧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⑨ 연초

III. 광산물

1. 광물성 생산품

- ① 소금·유황·토석류·석고·석회 및 시멘트
- ② 금속광·광재 및 화
- ③ 광물성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과 광물성 악스

IV. 경공업제품

1. 원피·가죽·도피 및 이들의 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 ① 원피(도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② 가죽제품, 마구(馬具), 여행용구·핸드백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③ 도피 및 인조도피와 이들의 제품

2.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籠)세공물 및 지조(技條) 세공물

- ①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 ② 코르크와 그 제품
- ③ 짚·에스파르토 기타의 조물(組物) 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技條) 세공물

3. 제지용 원료,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 ① 제지용 원료
- ② 지와 판지, 제지용 페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 ③ 인쇄한 서적·신문·회화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4.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① 견 및 견직물
- ② 인조섬유의 장섬유와 그 직물
- ③ 금속드리사와 그 직물
- ④ 양모와 기타의 수모 및 모직물
- ⑤ 아마와 라미 및 이들의 직물
- ⑥ 면과 면직물
- ⑦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그 직물
- ⑧ 기타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및 그 직물과 지사(紙絲) 및 그 직물

⑨ 양탄자·매트·매트지 및 태피스트리, 파일직물 및 셔니얼 직물, 세폭직물, 트리밍, 투울 기타의 망직물, 레이스, 자수포

⑩ 위닝 및 펜트, 끈·코오디지·로우프 및 케이블, 특수직물, 도포 또는 침투시킨 직물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⑪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및 이들의 제품

⑫ 방직용섬유 직물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⑯ 기타의 방직용섬유의 제품

⑭ 중고의류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과 넝마

5. 신발류·모자류·산류·매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① 신발류·각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② 모자류 및 그 부분품

③ 산(傘)류·지팡이·매(鞘) 및 이들의 부분품

④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발제품

V. 기타

1. 잡 품

① 가구와 그 부분품,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셔포오트·쿠션 및 이들과 유사한 물품

② 조각용·세공용 또는 성형용 재료의 제품

③ 비·부러쉬·분침과 채

④ 완구·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

⑤ 잡 품

2.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①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